

# 신태용 감독, "내 축구, 만든다"

## "내년 3월이면 신태용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 "목표는 월드컵 본선"

오는 10월7일 러시아, 10월 모로코와 유럽 원정 평가 2연전을 앞둔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굳은 각오를 전했다

신태용 감독은 2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오는 유럽 원정 2연전에 나설 축구 국가대표 23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2연전에서 포함된 K리그 소속 선수들은 모두 제외했다.

따라서 신 감독은 전원 해외파로 구성된 선수들로 명단을 꾸렸다.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번 명단을 꾸리면서 K리그 소속 선수들을 제외함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여기에 최근 거스 히딩크(네덜란드) 감독 후폭풍도 거세다.

신 감독은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번 유럽 평가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히딩크 감독 여론으로 많이 동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목표는 월드컵 본선이기에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사면초가'라는 말을 썼다. 그만큼 안팎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인정했다.

신 감독은 그러나 소신과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히딩크 감독의 업적과 능력은 존중하지만 자신만의 축구로 자신을 향한 불신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신태용 감독이 유럽 원정 평가전 소집 명단 발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그는 "히딩크 감독 향수는 분명하다. 그는 한국 축구의 영웅이다. 감독님이 사심 없이 우리 대표팀을 위해 도움을 준다면 나도 1%의 거절 없이 받아들이고 공유할 생각이다. 러시아와 모로코전을 패하면 후폭풍이 상당하겠지만 그것에 흔들려 주관을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월드컵 본선까지 채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신 감독은 오는 12월 동아시아인집, 내년 3월 평가전에서 팀 조직력과 세대교체를 통해 자신만의 축구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월드컵 진출 32개국

중 30위권 수준이라고 본다. 이것이 희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진출국 중에 순위가 낮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나가면서 이기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본선 조추첨에 따라 대응방이 달라질 수 있다. 12월 동아시아인집, 내년 3월 평가전을 치르면 신태용 축구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새롭게 팀을 옮긴 이승우와 백승호가 기존 선수들과 경쟁하며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하는 것이 목표다"고 덧붙였다.

/김민근기자

# 강정호, 제한선수 신분으로 윈터리그 뛰다

## 피츠버그 단장 "강정호 복귀하면 정말 좋은 선수 얻는 것"

음주운전으로 올 시즌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메이저리그(MLB) 제한선수 신분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 나섰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25일(한국시간) "강정호가 제한선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서 뛰게 됐다"고 보도했다.

날 헌팅턴 피츠버그 단장은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의 허가를 받아 강정호가 제한선수 신분으로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뛰게 됐다"며 "제한선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윈터리그에 뛰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강정호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MLB.com은 "강정호가 지난해 10월 3일 이후 실전에서 뛰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미국 취업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강정호는 팀에 합류하지 못해 올 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그는 광주와 합류를 오가며 훈련했다.

피츠버그는 지난 3월 강정호를 제한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렸다.

제한선수 명단에 오른 선수는 등재 기간 동안 2인·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고, 등재 기간 동안 급여도 받을 수 없다.

피츠버그 구단은 1년 가까이 실전을 치르지 못한 강정호를 위해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 이글리스 시바에나스 구단에 합류해 훈련하는 강정호

윈터리그 참가를 추진했고, 이글리스 시바에나스 입단을 주선했다.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은 1982년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돼 무비자 입국 및 90일 간 단기체류가 가능하다.

강정호는 지난 22일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떠났고, 24일 팀에 합류했다.

이글리스 구단은 공식 트위터에 강정호의 훈련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헌팅턴 단장은 "강정호가 실전을 치를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했다.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해서 강정호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실전을 치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팅턴 단장은 "강정호가 경쟁력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강정호가 타석에서 예전과 같은 스피드를 되찾는 것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강정호가 공수주에서 실전 감각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팅턴 단장은 "강정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내년 시즌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현 시점에서는 미국 취업 비자가 발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우리는 강정호가 이곳에 오지 못할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강정호가 비자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선수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신태용호, 유럽 원정 2연전 명단 발표 ... '이승우·백승호 제외'

러시아, 모로코와 유럽 원정 평가전에 나설 신태용호 2기 명단이 발표됐다

신태용 감독은 2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오는 10월7일 러시아, 10월 모로코(예상)전에 나설 축구 국가대표 23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전에서 포함된 K리그 소속 선수들은 모두 제외했다. 따라서 신 감독은 전원 해외파로 구성된 선수들로 명단을 꾸렸다.

관심을 모았던 이승우와 백승호는 선택받지 못했다.

신태용 감독은 "이탈리아 세리아A로 이적한 이승우(헬라스 베로나)와 백승호(지로나)는 팀을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2연전에 참가한 해외파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 시티),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등이 예상대로 부름을 받았다.

다만 부상을 입은 황희찬(잘츠부르크)은 제외됐다.

수비수인 송주환(알비렉스 니가타)은 생애 첫 A대표팀에 발탁됐다.

한편 신태용호는 다음달 2일 소집된 뒤 곧바로 러시아로 떠난다.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내년 월드컵 본선 개최국 러시아와 격돌하고, 10일 스위스(예선)에서 모로코와 붙는다.

○10월 A매치 2연전에 나서는 축구 대표팀 23인 명단

▲골키퍼-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일본), 김승규(비셀 고베·일본), 구성윤

(콘사도레 사포로·일본)

▲수비수-김기희(상하이 선화·중국), 김주영(허베이 화샤 신포·중국), 김영권(광저우 헝다·중국), 송주환(알비렉스 니가타·일본), 오재석(감바 오사카·일본), 임창우(알 와흐다·UAE), 윤석영(가시와 레이솔·일본)

▲미드필더-정우영(충청 리판·중국), 장현수(PC 도쿄·일본), 기성용(스완지 시티·웨일스), 권경원(덴진 취안젠·중국), 손흥민(토트넘 호스퍼·잉글랜드), 김보경(가시와 레이솔·일본), 남태희(알두하일 SC·카타르),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독일),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잉글랜드), 권창훈(디종·프랑스), 황일수(엔벤 푸더·중국)

▲공격수-황의조(감바 오사카·일본), 이동원(아우크스부르크·독일)

/김민근기자

# 추신수, 오클랜드전 무안타... 텍사스, 가을야구에서 멀어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마감했다.

추신수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클랜드-알타메다 카운티 콜리시엄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지난 21일 시애틀 매리너스전부터 24일 오클랜드전까지 매 경기 안타를 때려냈던 추신수는 연속 경기 안타 행진을 멈췄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65에서 0.263(82타수 140안타)으로 내려갔다. 1회초 첫 타석에서 1루수 앞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3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지렐 코튼의 5구째 시속 94.5마일(약 152km)짜리 직구를 노려쳤으나 우익수 뜯공에 그쳤다.

추신수는 6회 1사 1루에서는 2루수 방면에 병살타를 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추신수는 7회말 수비 때 윌리 칼훈으로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쳤다.

텍사스는 3안타 빈공에 시달려 1-8로 졌다.

오클랜드와의 3연전을 모두 내주고 3연패에 빠진 텍사스는 79패(76승)를 기록했다.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2위 미네소타 트윈스(82승 74패)에 5.5경기 차로 뒤진 텍사스는 가을야구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



텍사스는 남은 7경기에서 2패만 하면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된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